

“ 너희가 진실로
너희 영혼의 순종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라 ”

벧전 1:22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생명의 말씀이 샘솟는 교회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Tel) 630.673.9207



생명샘 장로교회 2026년 표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교회 막1:15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일 예배 2026년 4월 26일 오후 1시 인도/박화신 목사 반주/김현경

합심 기도 / 다같이

*찬송 / 주 예수 이름 높이어 / 찬송가 36(신) 36(구)

*성서 교독 / 성서 교독문 28번(시편 63편) / 다같이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달고 오묘한 그 말씀 / 찬송가 200(신) 235(구)

기도 / 한광기 장로

성경 봉독 / 베드로전서 1장 17-25절 / 다같이

말씀 선포 / 끝까지 남는 건 이것 / 박화신 목사

찬송 / 예수 영광 버리사 / 찬송가 451(신) 504(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 다같이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오늘 설교 말씀 요약

1.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이 익숙함의 연속으로 안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거룩한 긴장입니다. 이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그렇습니다.
2. 믿음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함이지요. 소망은 볼 수 없는 것을 품고 살아가는 힘을 공급합니다. 지.정.의로 겪은 것이 소망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이것은 순수한 믿음의 분량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권입니다.
3. 믿음의 모든 것을 확인하고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 영원의 신비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지난 주 설교 요약

제자답지 못한 제자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 차례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도 믿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던 교회조차,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신 응답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실제로 일하고 계셨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와 기준에 갇혀 그 사실을 보지 못하는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간절히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거나 일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역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둔감함에 있습니다.

디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나타났으며, 그 은혜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자신과 싸우게 하고,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이끕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바로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상황을 넘어서는 참된 평안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새로운 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사실은 우리가 익숙한 기준으로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더 많은 정보나 설명이 아니라,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기대를 잠시 내려놓고 이미 주어진 사실을 그대로 받아보려는 태도입니다. 그 지점에서 비로소 제자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생 명 샘 소 식

1. 생명샘 장로교회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2. 2026년 교회 표어를 '복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교회'로 합니다. 복음을 말로만 고백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오늘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교회의 정체성을 담은 표어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와 말씀, 교제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3. 교회 홈페이지에 실리는 매일성경을 통해 말씀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4.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는 사도행전 성경공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이번 금요일 16장 공부합니다).
5. 어머니 주일, 5월 10일 주일에 바베큐 파티 있습니다.
6. 각 전도회 모임이 5월 31일 주일 예배와 친교 후에 있습니다.
7. 여행 중이신 김정신 권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5월 예배위원

안 내	한규철		조은영		
기 도	최명희(3)	최상천(10)	조은영(17)	박래석(24)	한정임(31)

교 회 모 임 안 내

주일 예배	EM 예배	교회 학교	EM 성경공부	제직 성경 읽기	금요 성경 공부	목장 모임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3시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요일 저녁 8시	매달 네번째 토요일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영광은 들에 핀 꽃과 같습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때가 되면 마르고 떨어지는 것이 세상의 순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썩어질 씨'가 아닌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존재입니다. 금방 사라질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두기보다, 우리 안에 심겨진 썩지 아니할 생명의 씨앗을 신뢰하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유행과 형편은 쉴 새 없이 변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전한 이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성도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오늘도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진리는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